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신학 전문, 세션 4,
삼위일체에 대한 역사적 고찰, 3세기 및 아우구스티누스 소개**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신학 자체 또는 신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4, 삼위일체에 대한 역사적 고찰, 3세기 및 아우구스티누스 소개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의 역사적 신학과 JND 켈리의 초기 기독교 교리를 3세기 삼위일체론으로 옮겨가며 삼위일체에 대한 연구를 계속합니다.

3세기에 삼위일체 사상에서 상충되는 경향이 나타났고, 이는 나중에 논란을 위한 소재를 제공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유신론의 가장 큰 관심사는 신의 일체성이었습니다. 이교도주의와 영지주의와의 갈등은 이 기사를 전면면에 내세웠습니다.

그 결과 신학자들은 하나의 분리 불가능한 성격 내의 구별을 모호하게 알고 있었지만, 세 분의 영원한 관계를 탐구하려는 성향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개념적, 언어적 장치를 구성하려는 성향은 더더욱 보이지 않았습니다. 초기 교부들의 유형의 경제적 삼위일체론은 2세기 후반과 3세기 초반에 지지자들을 계속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은 로고스 교리를 피하고 계시에 의해 밝혀진 삼중성에 대한 강조가 점점 더 신성한 통일성을 위태롭게 한다고 의심하는 강력한 반발을 표면화시켰습니다.

이런 사상의 흐름은 주로 서구에서 두드러졌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가 직면했듯이, 그 추종자들이 경제에 두려움을 느끼고 군주정에서 피난처를 찾았기 때문에 Monarchianism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스어로 Monarchia는 모든 것의 신성한 근원과 원리가 하나라는 공리입니다.

동시에, 동양에서는 정반대의 운동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에 대한 솔직하게 다원적인 개념의 형태를 띠었고, 일신교의 기본 교리를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 안에 있는 세 신의 현실과

구별에 정의를 내리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인격으로서의 그들의 존속성에 대해 말합니다.

비록 처음에는 알렉산드리아와 연관되었지만,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은 그리스 삼위일체론 전체와 실제로 기독교 사상 전반에 영구적인 인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히폴리투스와 테르툴리아누스, 우리의 첫 번째 과제는 변증가와 이레네우스의 계통에 다소 직접적으로 서 있었던 두 신학자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가톨릭, 로마 반교황, 순교자 히폴리투스로 235년에 사망했고, 북아프리카 테르툴리아누스는 160년에서 220년경, 또는 일부 학자들은 220년경에 사망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전임자들처럼, 두 사람 모두 일신교를 매우 중시했으며, 영지주의 이원론을 반박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의 사상은 어떤 면에서는 비슷했지만, 히폴리투스는 더 모호하고 고풍스러운 맛이 있었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의 뛰어난 지성은 더 오래 지속되는 가치의 진술을 공식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레네우스의 가르침에 대한 그들의 가르침에 대한 단서는 두 가지 반대 방향에서 동시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존재로 존재하는 신 A와 창조와 구원의 과정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신 B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레네우스로부터 후자에 대해 빌린 포괄적인 용어는 경제였습니다. 그리스어로는 *oikonomia*, 라틴어로는 *dispensatio*입니다.

신의 계획이나 신의 은밀한 목적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기독교 신학에서는 성육신, 신의 목적의 목표에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의미 중 하나는 분배, 조직, 규칙적인 순서나 세금으로 여러 요소를 배열하는 것, 그리스어 단어였으며,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구별을 나타내는 데 확장되었습니다. 아버지, 실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경제의 실행에서 드러난 것처럼 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구별을 나타내는 데 확장되었습니다. 먼저 히폴리투스와 테르툴리아누스는 모두 하나님이 영원부터 독특한 고립 상태로 존재하지만 사람의 정신적 기능, 그의 이성

또는 말과 유추하여 자신 안에 내재하고 분리할 수 없이 하나라는 개념을 가졌습니다.

디아테토스 의 변증가이자 히폴리투스가 실제로 이 기술 용어를 사용한 이래로 친숙한 교리입니다 . 그에게 있어서, 티아티온 과 이레네우스 에게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지혜는 구별되며, 사실상 아들과 성령이 임박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테르툴리아누스는 지혜를 말씀과 동일시하는 전통을 따릅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은 홀로 계셨고, 자신의 우주, 위치, 모든 것이라고 지적하며 명백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외적인 것이 없다는 의미에서 혼자였지만, 그때조차도 그는 실제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 안에 소유한 이성, 즉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는 그의 전임자들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이 임박한 이성이나 말씀의 타자성이나 개별성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발산해 오셨던 신성한 말씀이며 , 인용하자면 자신에 더하여 두 번째를 구성하는, 가까운 인용문입니다.

둘째,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적 존재의 삼중성은 , 실례합니다, 창조와 구원에서 드러납니다. 히폴리투스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원하셨을 때, 그는 자신의 말씀을 낳으셨고, 그 말씀을 사용하여 우주를 창조하셨고,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여 그것을 장식하거나 질서를 정했습니다. 나중에, 여전히 세상의 구원을 염두에 두고, 그는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말씀을 성육신에서 보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후, 아버지, 즉 신격과 함께 또 다른 신격이 존재했습니다. 또 다른 신격, 두 번째 인격이 존재했고, 성령은 삼위일체를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경륜에 셋이 계시되어 있다면, 사실상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왜냐하면 명령하시는 분은 아버지이고, 복종하시는 분은 아들이며,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히폴리투스는 본질적인 통일성을 가장 강조하며, 오직 하나의 권능이 있으며, 내가 다른

권능에 대해 말할 때, 나는 두 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빛에서 나오는 빛, 근원에서 나오는 물, 태양에서 나오는 광선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일부 신조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힘은 오직 하나이고, 모든 것에서 나오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이고, 모든 것에서 나오는 힘은 말씀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이시므로 모든 것이 그를 통하여 있지만 오직 그 혼자만이 아버지에게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말씀은 후대 신학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종속주의적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 인격들이 인격이 아닌 것처럼, 그것은 후대의 말씀이고, 마치 그 세 분이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들리지만, 그런 기준으로 그를 판단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대착오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히폴리투스는 성육신에 대한 예고적 의미, 즉 예언적 의미 외에는 그 말씀을 아들로 지칭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창조의 사역에 대한 외삽으로부터 그의 완벽한 세대를 연대를 정하는 데 있어서 변증론자를 따랐습니다. 그 순간 이전에는, 신이 아들을 가졌다고 엄격히 말할 수 없었지만, 그 이후로, 초기 신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실체의 저자로 아버지 신을 의미했던 아버지라는 용어는 아들의 아버지라는 특수한 의미를 획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생성된 아들이라는 단어는 아버지에게 더하여 인격, 페르소나,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

그러나 세 번째에는 아들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인 영이 있습니다. 그는 아들을 거쳐 아버지로부터 나오며, 아버지와 아들의 세 번째입니다. 마치 새싹에서 나온 열매가 뿌리에서 세 번째인 것처럼, 강에서 끌어올린 수로가 샘에서 세 번째인 것처럼, 광선 속의 밝은 점이 태양에서 세 번째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또한 인격체이므로 신격은 삼위일체, 트리니타스 입니다 .

테르툴리아누스는 이 단어를 사용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이 세 분은 실제로 숫자적으로 구별되며, 셀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테르툴리아누스는 “우리는 오직 한 분의 신을 믿지만, 이 경륜에 따라, 우리의 경륜에 대한 말씀인, 유일하신 신께도 아들이 있습니다. 그의 말씀이신 이 분은 자신으로부터 나왔고, 그 아들은 약속에 따라 성령, 곧 보혜사를 아버지로부터 보내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같은 맥락에서 그는 신성한 통일성을 “삼위일체로 분배하고, 성부, 성자, 성령을 셋으로 제시하는 경제의 신비”와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경제에서 드러난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본질적 통일성과 결코 양립할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히폴리투스처럼 그는 세 인격이 단일한 분할할 수 없는 권능의 여러 표현이지만 제국 정부의 비유에 따르면 동일한 주권의 하나가 조정된 기관에 의해 행사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증론자처럼 그는 세 가지의 구별이 어떤 분할이나 분리를 수반한다는 제안을 거듭해서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분리가 아니라 구분(*distinctio*) 또는 분배(*dispositio*)였으며, 그는 뿌리 와 싹, 근원과 강, 태양과 빛 사이의 일체성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를 표현하는 그의 특징적인 방식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본질상 하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의 동일한 실체이며, 나뉘지 않고 확장되었습니다. 구세주의 주장인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는 세 분이 하나의 실체임을 나타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실체의 동일성을 가리키고 숫자적 통일성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의 실체이며, 아들과 성령은 아버지의 실체와 공통적입니다.

그는 원시적인 유물론적 언어를 사용하여 신성한 영을 은유적으로 매우 희귀한 종류의 물질로 여겼습니다. 칸타리안은 인용하자면, 아버지는 전체 실체이고 아들은 전체에서 파생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용문에서 부분이 문자 그대로 어떤 분할이나 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그는 문제를 요약할 때,

그 인격이 지위, 실체 또는 능력 면에서 세 가지일 수 있다는 생각을 일축합니다.

이것들과 관련하여, 신격은 분리될 수 없이 하나이며, 삼위일체는 그 인격들이 제시되는 등급, 양상 또는 표현에만 적용됩니다. 히폴리투스과 테르툴리아누스는 경제에서 드러난 세 분을 신격의 임박한 삶에서 모호하게나마 파악한 복수성의 표현으로 간주하는 데 있어서 이레네우스와 일치했습니다. 이레네우스의 발전이 있었던 부분은 그들의 시도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a, 그 세 분이 표현 또는 형태였던 신성한 힘 또는 본질의 일체성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었고, b, 그들을 인격으로 묘사한 데 있었습니다. 프로소파 (prosopa, 그리스어, 페르소네 (personae, 라틴어).

후자의 용어는 계시의 질서에서 나타난 것처럼 여전히 그들에게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에 임박한 영의 단어에 적용되었습니다. 그들의 용어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테르툴리아누스에게 있어서, 어쨌든 그의 법적 양육으로, 실질적이라는 말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그러나 은유적 의미가 그의 정신에서 가장 앞서 있었고, 그 단어는 신의 본질, 즉 신이 구체적인 실체에 중점을 둔 본질을 의미했습니다. 그가 말했듯이, "신은 실체, 즉 신성의 이름이며, 단어는 단순한 개념적 비실체가 아니라 실체적 실체, 즉 영과 지혜와 이성으로 구성된 실체입니다." 따라서 그가 아들을 아버지와 하나의 실체로 말할 때, 그는 그들이 동일한 신적 본성 또는 본질을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실, 신격은 나눌 수 없으므로 동일한 존재입니다. 반면에, 그리스어와 라틴어의 인격과 인격이라는 용어는 세 가지의 타자성 또는 독립적인 실체를 표현하는 데 훌륭하게 적합했습니다. 원래 얼굴을 의미하고, 그래서 표현을 의미하고, 그런 다음 역할을 의미한 후, 이전의 그리스어 prosopa, 즉 얼굴 또는 인격은 개인을 의미하게 되었고, 강조점은 보통 외부적인 면이나 객관적인 표현에 있습니다.

라틴어 페르소나의 주된 의미는 가면이었는데, 가면을 쓴 배우와 그가 연기한 캐릭터가 쉽게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페르소나는 재산의 소유권자를 의미할 수 있지만, 테르툴리아누스가 사용했듯이, 그것은 개인을 그 자체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오늘날 사람과 관련된 자의식의 개념이 전혀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세기의 마지막 수십 년인 역동적 군주주의는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현대 역사가들이 군주주의 라는 공통된 이름으로 통합한 두 가지 형태의 가르침의 출현을 목격했습니다 . 역동적 군주주의 는 더 정확하게는 입양주의라고 불리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이 내려온 단순한 인간이라는 이론이었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론적 이단이었지만, 그것이 발생한 상황은 삼위일체론에 따라 여기에서 다루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군주주의 와 모달리즘이 있습니다 . 군주주의 . 그들은 무엇이 공통점인가 ? 군주주의는 하나님의 왕권과 통일성이다. 이러한 오류는 큰 오류였으며, 교회가 신격의 통일성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 그것은 너무 커서 그들은 특히 아들과 성령에 관한 자료를 잘못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체성으로부터 옮겨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다른 결과들은 끔찍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을 주심으로써 그를 입양하셨습니다. 글썄요, 그게 그의 세례 때 일어난 일이 아니었나요? 아니요. 사람이 되신 영원한 아들은 그가 세례 때 지상에서 사역을 하도록 영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렇지 않았고, 물론 그는 어떤 의미에서 받아들여졌지만, 이런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즉, 단순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신보다 작은 신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동시대 사람들이 군주론 으로만

지칭했던 모달리즘은 성부, 성자, 성령의 구별을 모호하게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둘 다 군주론 의 형태로 분류한 것은 출발점과 동기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신성한 통일성, 즉 군주 주의에 대한 관심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가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

모달리즘 군주주의 . 역동적 군주주의가 주로 합리주의적 호소력을 지닌 비교적 고립된 현상이었다면, 군주 주의 자체, 즉 모달리즘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할 수 없습니다. 모달리즘은 상당히 널리 퍼진 대중적 사고 경향이었고, 공식적인 집단에서 어느 정도 동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일체성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에 대한 열정적으로 견지된 이중적 확신이었습니다.

그것을 공개하도록 강요한 것은 이러한 진리 중 전자가 새로운 로고스 교리와 신학자들이 신격이 삼위일체로 경제에서 드러났다고 표현하려는 노력에 의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의심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셋은 신입니까? 그것이 신의 통일성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협상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 그것은 사실이었지만 이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말씀이나 아들이 아버지와 다르거나 아버지와 다른 존재라는 어떤 암시도 모달론자들 에게는 피할 수 없이 두 신에 대한 모독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따라서 모달론적 군주론자들은 한 분의 신이 있다고 가르쳤고 , 실제로 그는 자신을 아버지로 계시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자신을 아들로 계시했으며, 오순절과 그 이후에 그는 자신을 영으로 계시했습니다 . 그러나 이것들은 동시대가 아니라 연달아 행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한 분의 하나님은 아버지였습니다. 이제, 같은 한 분의 하나님은 아들이셨고,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분의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되었고, 더 이상 아버지도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

모드라는 단어의 사용은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의 신성한 본질 안에 세 인격, 세 가지 존재 양식, 세 가지 존재 방식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은 모두 정통적인 말하기 방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 분이 동시에 신이신지, 아니면 세 분이 연속적으로 신이신지입니다. 일체성 오순절주의는 예수를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고수하는 현대적 형태의 모달리즘입니다. 아리우스파의 투쟁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든 문제가 아들의 완전한 신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였지만, 후자는 처음에는 배경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실제로 니케아 신조는 단지 성령에 대한 믿음을 확인했을 뿐이며, 성령이 신격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공개적인 논쟁이 일어나기까지 수년이 지나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문제에 대한 논의는 무기한 연기될 수 없었으며,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정통성의 형성을 추적할 것입니다.

이것에 주로 책임이 있는 신학자들은 동방의 카파도키아 교부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또 다른 줄이 필요하네요, 고맙습니다, 친구야. 바실 대제, 325-379, 그의 동생 니사의 그레고리, 335-395, 그리고 그레고리 나지안주스, 325-390.

니사의 그레고리는 바질의 남동생이었습니다. 서양에서는 물론 오거스틴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고 싶지만, 우리를 그쪽으로 이끄는 몇 가지 생각의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호모-에-오우시안 교회인들이 호모-오우시안 관점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오, 세상에, 전에 말씀드렸나요? 우리 전문 신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를 계속 고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별들. 두 번째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성령의 지위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서, 그가 아버지와 아들과 완전히 인격적이고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기독교 신학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 문자 하나 때문에 전쟁을 벌일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글썄요, 아들 이 아버지와 아버지와 동등하거나 아버지와 같은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며, 그렇습니다. 글자로 표현될 수도 있고 천 단어로 표현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발전의 첫 번째에 크게 관여한 인물은 아타나시우스와 푸아티에의 힐라리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근본적인 문제에 관해서, homo-et-ousians 와 니케아 당인 homo-ousians 사이의 간격이 극히 좁다는 것을 깨달았고, 후자의 최종적인 성공은 그들 사이에 화해를 확립함으로써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는 De Sinatis 359에서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여 homo-et-ousians를 본질적으로 자신과 하나인 형제로 경의를 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들이 다른 hypostasis가 아니라 아버지의 ousia 에서 나왔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진정한 자손이자 그와 함께 영원한 그들은 homo-ousian을 인정하기에 충분히 가까웠 으며, 그것만이 그들이 분명히 받아들인 진실을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힐러리는 그의 공식화에서 한층 더 나아갔다. 매우 중요한 또 다른 실제적 단계는 362년 아타나시우스의 의장 하에 열린 알렉산드리아 공의회에서 취해졌다. 모든 주의 깊은 독자는 당시 서로 다르고 서로 혼동스러운 신학적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신학적 분열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고 유지되었는지 알아차리고 놀랐을 것이다.

알렉산드리아 공의회에서 중요한 것은 사용된 언어가 아니라 그 언어의 기저에 있는 의미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야호! 언어적 진보, 친구 여러분. 따라서 니케아인들 에게 지금까지 의심스러웠던 세 위격이라는 공식 은 그들의 귀에 세 우시아 , 즉 세 신성한 존재처럼 고통스럽게 들렸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리아인들이 말하는 완전히 다른 외래 위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고 서로 본질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 가지 원리 또는 다른 신들. 일어나는 일은 언어의 정의와 보호에 의한 화해이지만, 단지 표현된 것일 뿐입니다. 즉, ousia , 세 ousia , 단지 본질이 같은 삼위일체에서 세 인격의 개별적 실체를 표현한 것입니다. 모든 학파의 반 니케아파 에게 매우 불쾌감을 주는 반대 공식인 하나의 hypostasis 도 동등하게 승인되었고, 그 지지자들은 그들이 시민적 의도가 없고, hypostasis를 ousia 와 동일시하며, 단지 아버지 와 아들 사이의 본성의 통일성을 끌어내려고 했을 뿐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정치가적 결정은 우연히 서방에서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는데, 그들은 세 위격을 삼신론의 고백으로 보았고, 두 당의 연합은 사실상 봉인되었으며, 우리는 그 안에서 정통의 상징이 된 공식, 하나의 우시아 , 세 위격, 하나의 본질, 세 인격을 예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타나시우스와 힐라리가 이러한 서신을 통해 호모우시아를 가정적 아토우시아의 의미 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이론이 제시되었는데 , 그것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로 간주한다면, 그 인격은 둘이고, 적절하게 유사하다고 지칭될 수 있으며, 그들이 모두 소유하고, 하나 안에 있으며, 하나이고 분리될 수 없는 본질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추적하지 않을 오류입니다. 아타나시우스와 힐라리의 이 정치가적 태도는 효과가 없지 않았습니다.

homoousion의 대부분이 완전한 아리우스주의의 위협에 점점 더 불안해하던 시기에 나온 이 책은 정통파가 고집스럽게 시벨리안 이라는 의심을 가라앉혔고 homoousion 신학을 그들에게 더 수용 가능하게 만들었다. 성령의 homoousion, 아타나시우스, 두 번째 발전 방향, 즉 성령의 완전한 신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타나시우스의 선구적 공헌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더 긴 논의를 요구한다. 오리게네스의 시대 이후로 성령에 대한 신학적 성찰은 경건한 실천보다 눈에 띄게 뒤떨어졌다.

오리게네스는 요한복음 1-3장을 해석하면서 영이 태양을 통해 존재하게 된 것 중 하나라고 주장하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맵소사. 카파도키아인들은 이런 문제 중 일부를 다루어야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아리우스파의 조롱에 대답한다면, 영의 동질성은 아버지가 두 아들을 두는 데 관여하는 듯하다는 것이다. 카파도키아인들은 오히려 태양의 오리게네스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구별했다. 니사의 그레고리는 결정적인 진술을 증명하는 것을 제공했다. 다른 두 카파도키아인들은 그렇게 명확하거나 강조하지 않았다.

니사의 그레고리는 성령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그리스도에게서 나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나오고 아들에게서 받습니다. 그는 말씀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영의 이중 행렬이라는 개념으로 가는 짧은 단계입니다. 니사의 그레고리우스에 따르면, 세 인격은 기원에 따라 구별되어야 하는데, 아버지는 원인이고 다른 두 인격은 원인이 됩니다. 원인이 되는 두 인격은 한 인격이 아버지에 의해 직접 생산되고 다른 인격은 중재자를 통해 아버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아들만이 독생자라는 칭호를 주장할 수 있으며, 성령과 아버지의 관계는 그가 아들을 통해 존재를 그에게서 받았다는 사실에 의해 어떤 식으로도 편견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영원하며, 그들은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그레고리는 원인과 결과로 성령과 관련된 아들에 대해 말하고, 햇불이 먼저 빛을 내어 다른 햇불에 닿게 한 다음, 그것을 통해 세 번째 햇불에 닿게 하는 비유를 사용하여 세 인격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아들은 삼위일체의 근원인 성령을 생산하는 아버지에게 종속되어 의심할 여지 없이 대리인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그레고리의 교리입니다. 그 후 동방 교회의 일반적인 가르침은 성령의 행렬이 아들을 통해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카파도키아인들이 말했듯이, 아들을 통한 아버지로부터 이중 행렬이라는 개념은 종속주의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 배경은 영의 homo oeconomicus에 대한 전적인 인식이기 때문입니다.

영은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본질입니다. 다시 말해, 영은 또한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입니다. 카파도키아인과 삼위일체, 우리가 공부해 온 발전의 절정은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니케아 신앙을 확증하고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때, 영과 아들의 동일 본질이 공식적으로 지지되었습니다. 위대한 카파도키아인들과 눈먼 디디무스와 에바그리우스 와 같은 교사들에 의해 예시된 것처럼 우세했던 신학 폰티쿠스는 본질적으로 아타나시우스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접근 각도가 그의 접근 각도와 다소 달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호모 오션 전통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의 신성한 실체보다는 세 개의 위격을 출발점으로 삼은 것은 당연했습니다.

아타나시우스처럼 그들은 아들과 영의 homo oecumene의 옹호자였습니다. 그들의 교리의 본질은 하나의 신격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이 아버지와 아들과 영으로 연속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모달리즘 군주주의나 모달리즘 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리의 본질은 하나의 신격이 세 가지 존재 양식 또는 hypostases에서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스웰은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의 모든 것은 아들 안에서 보이는 것과 같고, 아들이 보고 있는 모든 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속한다는 것인데, 아들은 온전히 아버지 안에 거하고, 그 대가로 아버지를 온전히 자신 안에서 소유한다. 따라서 아들의 실체는 말하자면 아버지가 알려지고 아버지의 실체가 아들의 형태로 인식되는 형태와 표현이다. 여기서 우리는 신적 인격의 공존 또는 나중에 페리코레스시스라고 불리는 교리를 갖는다.

신격은 분열된 인격으로 분열되지 않고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며, 세 위격에는 본성의 동일성이 있습니다. 세 위격은 하나의 본성, 즉 신이 근거이자 통일체이며, 그로부터 후속 인격이 계산되는 아버지입니다. 모든 종속주의가 배제되는 반면, 카파도키아인의 눈에 아버지는 신격의 근원 또는 원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동방 기독교입니다. 그 생각은 그가 자신의 존재를 다른 두 사람에게 부여하고, 그래서 그들을 발생시킨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존재의 영원한 부여입니다. 어떻게 한 실체가 세 사람에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 그들은 보편적인 것과 그 특수한 것들의 비유에 호소합니다.

이 관점에서 각각의 신성한 위격은 적절한 특수화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usia* 또는 신격의 본질입니다. 기본적인 이러한 특수화 특성은 각각 아버지인 부성, 아들인 아들, 그리고 영인 성화 능력 또는 성화입니다. 다른 카파도키아인들은 그것들을 생성성으로 더 정확하게 정의합니다. 태어나지 않음 아버지 생성 탄생은 아들이며, 사명 또는 진행은 영입니다.

따라서 인격의 구별은 신격과 상호 관계 내에서의 영원한 기원에 근거합니다. 카파도키아인들은 하나의 분리할 수 없는 신성한 실체가 분배되고 자신을 나타내는 방식을 분석했고, 따라서 존재 양식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현대 언어로, 합성된 전체 불변 실체 존재는 각 인격의 전체 불변 존재와 동일합니다.

개인에게 객관적으로 제시되는 방식일 뿐이다. 카파도키아인들은 이렇게 하여 아타나시우스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하이포스타시스 하이포스타시스의 개념을 분석했다. 그들이 삼신론적이 라는 비난은 터무니없고 거부되어야 한다.

칼빈이 종교 개혁을 통해 교회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인이었던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공헌은 모두 그를 스승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카파도키아의 서방 전통을 전하고 동방 전통에 형태를 부여한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였습니다. 그러나 서방 전통에 성숙하고 최종적인 표현을 제공한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였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기독교인으로서 삼위일체 문제를 숙고하고, 교회의 교리를 탐구자들에게 설명하고, 공격으로부터 이를 방어했습니다. 아마도 그의 가장 위대한 작품은 삼위일체에 대한 *Detrinitate* 로 알려진 길고 정교한

토론일 것입니다 . 그는 399년과 419년 사이의 다른 날짜에 이를 모았습니다. 그는 삼위일체인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본질상 동시에 구별되고 본질적인 수적으로 하나라는 진리를 의심 없이 받아들였고, 그의 저서에는 이에 대한 자세한 진술이 가득합니다. 그는 어디에서도 이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견해에 따르면, 성경이 거의 모든 페이지에서 선포하고 보편적인 신앙인 보편적 신앙이 신자들에게 전수하는 계시의 자료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이해에 앞서야 한다는 그의 원칙의 최고의 예입니다. 안셀름에 의해 더 유명해진 원칙이지만, 평소처럼 출처는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의 삼위일체 정통성에 대한 설명은 전반적으로 성경적이지만, 절대적인 존재인 신 에 대한 그의 개념은 단순하고 나눌 수 없으며 범주를 초월하는 것이 항상 존재하는 배경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출발점으로 삼은 전통과 대조적으로, 그가 시작한 동양 전통은 신성 그 자체로 시작합니다. 신성의 일체성에 대한 이러한 강조에서 여러 가지 추론이 따릅니다. 우리는 내일 이것들을 더 탐구할 것입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개요만 제공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개요만 제공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신격 안에서의 상호 관계에 근거한다고 보는 이러한 인격의 구별로 이어진다. 셋째, 아우구스티누스는 영의 행렬이 무엇인지 또는 아들의 생성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데 항상 당황했다. 마지막으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 신학에 대한 가장 독창적인 기여는 인간 영혼의 구조에서 유추를 사용한 것이다.

신을 증명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삼위일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계시는 절대적 일체성의 신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동시에 세 가지 사이의 실제적 구별을 심화시키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서양 삼위일체 신학의 정점을 나타내는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탐구할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 자체 또는 신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4, 삼위일체에 대한 역사적 고찰, 3세기,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소개입니다.